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

(Prepare for the Day of the Lord)

(스가랴 6:1~8)

0.1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해 ‘미래의 문을 여는 사람’이다.

- 이사야 46:10,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까지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I. 하나님만이 미래를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

1. 하나님은 미래에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를 왕좌에 서시게 하실 것(대관식)이다.
2. 스가랴 6:4~5, “4.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 ‘네 병거’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집행하는 ‘심판 집행 천사’를 상징한다.
3. 스가랴 6:6~7, “6.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룡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7. 전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 병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해 북쪽(바벨론)과 남쪽(애굽)으로 돌격했다.
 - 이사야 25:8, “...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 요엘 2:26, “...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II. 이제는 돌아와야 할 때

1. 스가랴 6:8, “...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 북쪽으로 나간 병거가 여호와의 심판을 실행에 옮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2. 오늘 본문에서 ‘나가다’라는 표현이 일곱 번 나온다. 이것은 강력한 돌격과 확실한 심판을 의미한다.

3. 스가랴 2:6~7,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빨리 탈출해야 한다.

• 창세기 19:14,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4. 요한계시록 6장에서, ① 2절의 ‘흰 말’은 ‘승리와 정복’을 ② 4절의 ‘붉은 말’은 ‘전쟁과 피’를 ③ 5절의 ‘검은 말’은 기근을 ④ 8절의 ‘청황색 말(스가랴에서는 어룡진 말)’은 ‘죽음과 지옥’을 상징한다.

5.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영원의 관점’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끊임없이 당하는 고난과 오해와 고통에도 영적 기백을 유지할 수 있다.

III. 심판은 하나님께, 우리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1.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신다.

기독교적 역사관은 ‘정반합의 역사’도 아니고, ‘윤회의 역사’도 아니고, 역사의 알파 포인트와 오메가 포인트가 분명하여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2. 주인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Game Over).

3. ‘심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주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야

• 전도서 12:13~14, “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